

,

아동증언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것과 비교해, 국내에서는 관련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낯선 상황에서 낯선 성인과 함께 놀이를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상황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단지 관찰하였는지 등에 따른 참여여부 정도, 그리고 기억과제에서 질문의 내용과 유형(객관/유도), 이외 질문자가 위협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참여-비위협집단이 관찰-비위협집단, 참여-위협집단에 비해 기억수행이 더 좋았으며, 유도질문에서도 더 기억을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있어서, 성관련 행동문항에 있어서 참여-비위협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기억수행이 높았다. 유도질문에서 질문형태가 강제선택인 경우가 단순형에 비해 더 기억수행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린 아동도 자신이 참여한 상황에 관한 기억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유도질문이나 성관련 문항에서도 기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의 형태가 강제선택일 경우 아동의 기억수행은 저조할 수 있으며, 또 위협적인 질문자의 경우 기억수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아동증언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아동증언, 참여여부, 유도질문

범죄현장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피해자이고, 성인이 가해자이며, 다른 증거 없이 주로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증언의 문제는 실제 법정 현장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아동이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20만명 이상의 아동이 법적인

---

세심한 심사평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문제와 연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성폭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서 아동이 피해자, 혹은 관련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성폭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1999년 이후 3년간 성폭행 당한 어린이는 1,301명으로 전체 성폭행 피해자 13,017명의 10분의 1이었으며, 그 중 6세 이하 ‘유아’가 147명으로 11.3%나 됐다. 성폭행은 어린이 상대 강력범죄의 27~37%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현, 2002).

만 3, 4세의 어린 아동이 하는 증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으로나 실제 현장에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eci & Bruck, 1993). 1970년대 이후로 아동증언에 대한 연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들 연구를 토대로 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동의 암시성, 아동증언에 대한 배심원들의 반응, 전문가의 면접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Office of Confidential Doctors가 직접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일차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을 다루는 의사들을 도와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15세 이하의 어린 아동의 증언을 얻고 평가하기 위한 특정한 절차(the Law of Evidence Revision Protection of Children: LER-PC)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Sternberg, Lamb, & Hershkowitz, 1996), 캐나다에서는 1981년 성적·신체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 범죄에 대한 위원회 (Committee on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Youth)를 조직,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Sas, Wolfe, & Gowdey, 2002). 한편, 영국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아동증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 내무부는 1992년 8월, 아동의 증언과 관련, Memorandum of Good Practice를 정했는데, 여기에는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포함시키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법적 조건과 녹화가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사용되어야 할 장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이는 영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Bull & Davis, 1996).

그렇다면 아동증언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주된 논쟁은 무엇일까? 주로 아동이 증언으로서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과 정확한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려는데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증언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다.

## 아동증언시 암시성, 직접경험 여부와 기억의 정확성과 일관성

아동증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암시성이다. 암시성(suggestibility)이란 사람들이 사건 이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 속에 포함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동증언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어린 아동들이 나이드는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나 암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eippe, Brigham, Cousins, & Romanczyk, 1989; Yarmey & Jones, 1983). 즉 아동들은 암시질문에 취약하고 그에 따라 증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Ornstein, Gordon, 및 Larus(1992)는 3세와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과 진료에 대한 진술을 얻으면서 유도질문을 이용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유도와 암

시에 대한 영향이 큼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아동들이 암시질문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King과 Yuille(1987)는 이러한 원인을 기억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6세, 9세, 11세, 1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도 질문과 암시에 의한 기억 왜곡을 알아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유도질문에 의해 더 유도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외는 달리 Ceci와 Bruck(1993)는 아동들이 암시질문에 취약한 것은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질문자에게 동조하는 현상과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ohen과 Handrick(1980)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의식적으로 어른들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어린 아동들의 기억 수행에서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어린 아동도 일어난 사건에 관해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4세 및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제 성적인 학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술이 암시에 의해 왜곡되는가를 알아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유도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유도되지는 않았음이 밝혀졌다 (Goodman, Rudy, Bottoms, & Amen, 1990). Goodman, Bottom, Schwarts-Kenny, 및 Rudy(1991)는, 3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상황에서 아동보고의 정확성을 알아보았는데, 질문을 하는 성인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기억을 하게 하면,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잘못 진술하는 오류는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보고에서 아동들은 정확하지만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Fivush, & Shukat, 1995; Hamond & Fivush, 1991; Peterson, Moores, & White, 2001). 예를 들어, Hamond와 Fivush(1991)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 비유도적 질문을 사용하여 두 번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두 번째 면접에서 보고한 정보의 75%는 새로운 것으로, 첫 번째 면접 동안 보고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정보도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의 회상은 취학 전 아동보다 더 일관적인 경향이 있었다 (Hudson & Fivush, 1991). 연령차에 대한 한 가지 설명 가능한 요인은 어린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성인의 질문에 대한 의존성이다. 즉, 어린 아동들은 때때로 성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서들로 자신의 보고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이 시간에 걸쳐 상이한 질문을 한다면, 보고도 그것에 의존하여 구성되고 결과적으로 비일관적으로 될 수 있다 (Ghetti, Goodman, Eisen, Qin, & Davis, 2002).

이처럼 아동증언에 대한 연구들은 어린 아동이 성인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암시에 넘어가고 유도질문에 보다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어린 아동들, 특히 취학전 아동들이 더 나이든 아동과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많이 하는 조건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Bruck & Ceci, 199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더욱 많은 아동들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단일한 유도 질문이 중성적이고, 때로는 전혀 흥미롭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아동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실제 법정 장면과 보다 유사하고 흥미로운 상황에 대한 아동의 회상에 대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Bruck & Ceci,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취학전 아동이라 할지라도 특정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개인적으로 특출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며, 질문유형에 따라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고, 면접받는 사람이 조성하는 분위기에 따라 암시 없이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상황에 대한 직접 경험 여부가 아동증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 후의 응급실 방문에 대한 아동 기억이 연구되었다. Peterson 등(2001)의 연구에서는 2~13세 아동이 4회 면접(1주일, 6개월, 1년 및 2년)을 받았는데, 이때 일관성이 회상된 정보의 유형(상처-관련 정보 혹은 병원-관련 정보)에 따라 변화되는지 여부가 관찰되었다. 그 결과 병원 관련 정보보다 상처관련 정보에 대해 아동들은 보다 일관적으로 반응하였다. 상처를 입게 된 순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와 같은, 높은 개인적 특출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정보가 병원에서의 사건과 같은 정보보다 일관적으로 보고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아동들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보고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Peterson, Moores, & White, 2001).

이외에도 아동에게 특정 놀이상황을 설정하여 낯선 성인과 놀이를 하게 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는 연구들 (Rudy & Goodman, 1991; Tobey & Goodman, 1992)이 있다. 이때 실제로 아동이 놀이에 참여한 것과 그저 관찰하게 한 조건 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4세에 비해 7세의 기억이 더 우수

함을 보였다 (Rudy & Goodman, 1991).

## 아동증언시 질문의 유형과 기억의 정확성과 일관성

아동의 기억을 알아보는 질문의 유형이 아동증언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상이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가 있다 (Ghetti et al., 2002). 취학전 아동에게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면, 일관성은 매우 낮지만 정확성은 비교적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정한 비유도적 질문을 할 때, 일관성과 정확성 모두 높아질 수 있으며, 개방형 또는 자유회상형 질문은 아동이 보고할 정보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도록 해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Fivush, 1993).

그러나 한편으로 일관성과 정확성은 질문 유형에 의해 모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유도 질문과 암시적 질문은 일관성과 정확성을 모두 떨어뜨리며, 취학전 아동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은 시간에 걸쳐 덜 일관적이며 덜 정확함이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Poole & White, 1991).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도질문의 강도에 따라 암시받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4세에서 6세 아동들은 존재하지 않는 캐비닛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방에 캐비닛이 있었니?”라는 질문에 대해 6%만이 틀린 반응을 한 반면에, “그 방에 캐비닛이 없었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5%가 틀린 반응을 보였으며, “그 방에 있던 캐비닛 문이 열려 있었니?”라는 질문에 56%의 아동이 틀린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그 방에는 캐비닛이 없음) (Bruck, Ceci, & Hembrooke, 1998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로는 방

안에 없는 캐비닛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강하게 포함된 유도질문일 수록 아동들이 부정확한 대답을 하는 경향이 강함을 말해준다.

Saywits, Goodman, Nicholas, 및 Moan(1991)은 5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식기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보고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개방형(open-ended), 직접형(direct), 유도형(misleading)이었는데, 생식기 접촉과 관련된 증언의 경우,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기억수행이 좋았다. 생식기 접촉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 생략하는 오류가 많이 일어났으나, 생식기를 만진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을 때는 잘못된 보고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볼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소수의 아동만이 생식기 검사에 대해 반응하였으며, 많은 아동들이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반응하였다.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보고하지만, 전체적인 정확율은 개방형 질문에서 높았다. 구체적 질문과 유도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정확성은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이재연과 정영숙, 1999; Bruck, et al., 1998).

유도질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도 질문을 들은 5세 아동과 객관적 질문을 들은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응답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르게 질문한 유도질문을 들은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을 들은 아동들보다 질문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신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에서 유도질문조건과 객관질문 조건의 아동은 차이가 없었다. 즉 아동들은 사건을 정확

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유도질문을 받았을 때 어린 아동들은 모르겠다는 반응 보다는 암시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 (Carter, Bottoms, & Levine, 1996).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만 5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유도질문이 아동 진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유도질문은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라는 문장 형식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형식이라고 정의되었다. 즉, 질문 자체가 사건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형식의 질문을 말한다. 아동과 찰흙놀이를 한 다음, 놀이 과정에 대해 객관적 질문과 유도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유도질문을 받은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받은 아동들보다 유도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박자경과 이승복, 1999).

Peterson, Dowden, 및 Tobin (1999)은 질문형식이 3세부터 5세의 어린 아동의 기억 반응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일주일 전의 사건에 대해 아동에게 회상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질문은 행위와 실험자, 환경에 대해 “예/아니오” 형식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니?”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질문형식은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들은 “예/아니오” 형식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들이 잘 모를 때조차도 질문형식에 따라 부정확한 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개방형 질

문(open-ended question)에 의해 정확한 정보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연구 결과들(Dent & Stephenson, 1979; Fivush, 1993; Ornstein, et al., 1992; Poole & White, 1995)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특정한 구체적 질문(specific question)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개방형 질문에 대해 보고하는 정보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다(Goodman & Reed, 1986; Ornstein, et al., 1992). 따라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개방형 질문과 더불어 특정한 질문을 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서나 법원에서는 아동증인에게 증언을 얻을 때 구체적 질문을 한다. 구체적 질문에 유도나 암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비유도적 구체적 질문을 할 때, 일관성과 정확성 모두 높아진다(Fivush, 1993).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 질문이 유도적으로 제시될 때이다. 특히 강제-선택 및 예/아니오 형식의 질문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특정한 질문의 유형들이며, 유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Peterson, et al., 1999; Rosenthal, 2002). Peterson 등(1999)에 따르면 많은 구체적인 질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보가 질문자에 의해 제시되고 아동은 단순히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대답하도록 요구되는 ‘예/아니오’형식을 띄게 된다. 또한 아동에게 학대가 침실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욕실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강제 선택 질문(forced-choice question)의 예가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학대가 일어났음을 사전에 가정하고 대답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아동이 질문자에게 학대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Rosenthal, 2002). 구체적 질문방식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아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경험된 것으로 보고하도록 만들 수 있다.

질문의 유형이 아동증언에 미치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개방형 질문이나 특정한 질문을 하되, 유도적인 구체적 질문들, 예를 들어 강제-선택 및 예/아니오 형식의 질문은 피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면접상황과 아동증언

일반적으로 아동증언 실험에서 아동들은 도식화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 일부 아동은 아동의 경험에 대한 오정보를 주거나 다양한 암시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성인에 의해 질문을 받게 된다. 다른 아동들은 암시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비편향된 질문자에 의해 질문을 받게 된다. 이때 아동들은 도식화된 사건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보고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암시적인 유도 질문을 받게 된다(Rosenthal, 2002).

높은 지위를 가진 성인에 의한 면접, 반복된 질문 등은 아동의 증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성인이란 경찰이나 부모와 같은 질문자들을 포함하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지위가 높거나 아동의 눈에 그렇게 지각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이 저항하기 어렵게끔 하는 성인이나, 아동이 질문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Rosenthal, 2002). 따라서 아동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단순히 아동이 그 사실에 대한 질

문자의 가정을 확증하기를 원하는 질문자들은 높은 지위의 질문자라 할 수 있다.

반복질문이 아동의 증언에 미치는 영향은 질문자 편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아동이 자신의 가설과 일치하는 반응을 할 때까지, 때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은 아동에게 면접동안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동이 원래 대답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질문이 단순한 예/아니오 형식이거나 아동에게 모호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질문자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질문자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산출할 경우 처벌될 것이며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이야기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시할 수 있다 (Rosenthal, 2002). 질문자의 이론과 일치하는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제공되는 부정적인 피드백, 아동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처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이론에 부합되는 대답을 할 때 아동을 칭찬해 주는 것, 아동을 노골적으로 매수하는 것 등은 보상의 예가 된다. 또한 편향된 질문자는 “너희 엄마와 아빠가 말해준 거니, 아니면 네가 그 걸 본 거니?”와 같이 특정 주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가설과 불일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며 아동이 자신의 가설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편향된 질문자 자신의 처음 가설의 틀 안에서 이를 해석한다(Bruck, et al., 1998).

선입관적 유도(stereotype inducement)는 편향된 질문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으로, 이런 질문자는 아동에게 의심되는 범행에 대해 부

정적인 언급을 한다. 예를 들어 “~은 나빠” 혹은 “~은 나쁜 일을 했어”등이 이에 속한다.

편향된 질문자는 또한 아동의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강화를 줌으로써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개 끄덕임, 미소, 혹은 “와, 대단하구나!”와 같은 감탄사를 통해 질문자는 자신의 믿음이나 가설과 일치하는 진술을 얻어내고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진술들을 무시한다. 편향된 질문자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부모에 의해 학대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부모와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인 법정 맥락(forensic context)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동증언에 대한 많은 실험실 연구에서 실제 법정 맥락에서의 증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righam, Van Verst, & Bothwell, 1986; Goodman et al., 1990). 증인의 보고가 질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에 의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Goodman & Schwartz-Kenney, 1992; Melton & Thompson, 1987; Spencer & Flin, 1990).

암시가 권위자에 의해 주어진다면, 그리고 아동들이 때로 부정확한 보고를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면접을 받는다면 (Loftus, 1979), 법정 장면과 보다 유사한 맥락은 아동증언의 부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가정된다. Tobey와 Goodman (1992)의 연구에서는 낮선 장소에서 낮선 사람과 놀이를 한 다음 11일이 지난 후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참여조건과 경찰조건이 비교되었는데, 놀이 참여의 절차는 동일하며 2번째 시점에서의 면접에서 차이가

있었다.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동은 실험자에게 경찰이 뭔가 물어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는다. 아동이 동의하면, 실험자는 부모와 아동을 경찰관(실제로는 실험협조자)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다. 경찰관은 아동과 라포를 형성한 다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나는 지난 번에 네가 여기 있을 때 있었던 좀 나쁜 일에 대해 아주 관심이 있어. 나는 그 베이비시터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싶어.” 다음으로 그는 아동에게 “우리는 네 도움이 필요해. 내 동료가 지금 여기 올거야. 그리고 너에게 몇가지 질문을 할거야”라고 말 한 다음 방을 떠난다(이 때 경찰관은 그 베이비시터가 아동 학대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야기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질문자가 들어오고 나서 실험절차는 참여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동료경찰관으로 소개된 질문자는 푸른색 스커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는 배지를 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의 복장과 유사하다. 일관성을 위해 질문자는 모든 면접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면접의 끝 부분에, 실험의 목적과 비디오 녹화 테이프를 통해 암시되었던 거짓 사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그에 더하여, 실험자, 경찰관, 및 부모는 아동에게 경찰 조건에서 그 베이비시터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해준다. 그 결과, 사건에 대한 자유회상반응에서 참여 조건의 아동, 즉 놀이에 직접 참여하고 비위협적인 질문자를 만났던 아동들이 경찰이라고 믿어지는 질문자를 만났던 아동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으나, 실험협조자, 방, 시

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조건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Tobey & Goodman, 1992).

협박, 공포, 물질적 보상 등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때 아동 진술에서 보이는 왜곡의 정도와, 유사한 상황에서 성인이 보이는 왜곡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Ceci, Leichman, & Putnick, 1992; Lewis, Stranger, & Sullivan, 1989; Peters, 1991).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적인 사실은 아동과 성인 모두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나, 일반적인 요구특성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가 나므로 어린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억 왜곡을 보인다는 것이다 (Leichman & Ceci, 1995). 예를 들어, 취학전 아동들은 나이든 아동보다 더 암시적이며, 특히 권위자에 의한 면접에서 암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Ceci, Ross, & Toglia, 1987). 아동의 이런 경향은 기억 보고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는 성인 질문자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Leichman & Ceci, 1995). 암시성에서의 이러한 발달적 차이는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Leichman & Ceci, 1995).

Ceci 등 (1987)은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고하는 진술의 정확성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일정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4세 아동의 절반은 성인으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7세 아동으로부터 잘못된 정보(false information: 오정보)를 받게 하였다. 그 결과 7세의 아동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보다 성인



으로부터 받았을 때 오정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 아동의 진술의 정확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 최근 들어 아동증언과 관련하여 발달심리학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실험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성관련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아동증언에 대한 대표적 실험을 응용한 것이다. 즉 만 4, 5세 아동이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기억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증언의 신뢰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이 실제로 자신이 참여한 활동인지, 다른 아동의 놀이를 관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자 하였으며, 또 기억시 질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질문자에 따라 기억 정도가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문유형에 있어서 객관적인 질문과 유도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유도질문에 있어서도 둘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된 질문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성관련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관련 암시가 담긴 질문을 받더라도 아동의 진술은 사실과 일치할 것이다. 만일 아동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유도질문을 받더라도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 아동증언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성 관련 유도질문과 성

관련 객관질문에서 반응의 정확성이 달라질 것이고, 그 수행은 집단(참여정도, 위협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질문자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여성 질문자가 질문을 한 경우와 위협적인 남성이 질문하였을 때 아동의 기억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 예비실험

### 연구대상

2003년 3월 서울 동작구 소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아동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절차

아동은 유치원 내, 빈 교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 실험자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가위바위보, 끝말잇기 게임, 찰흙놀이, 옷입기, 사진찍기 놀이가 이루어졌다. 실험자는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절차로 놀이를 진행할 것을 미리 훈련 받았으며, 한 명은 놀이에 직접 참여하나, 나머지 한 명은 옆에서 놀이상황을 관찰하였다. 그 다음 날 놀이 장면에 대한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놀이가 이루어진 상황은 모두 비디오로 촬영하여, 이후 연구자들은 다시 이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 결과

본 예비실험은 본 실험에 사용될 실험 절차 및 실시 놀이 유형과 시간을 확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비실험의 경우 아동에게 익숙한 유치원에서 이루어져

서 아동들이 낯선 사람과 놀이를 하는 것에 관하여 그다지 새롭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장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실험은 유치원이 아니라 아동에게 낯선 장소에서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아동의 경우 바로 옆에서 다른 아동이 놀이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 자신도 놀이에 참여하려고 하는 등 관찰자의 통제에 문제가 되었다. 즉, 관찰조건의 아동들은 실제 실험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관찰만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대답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대신 대답을 해버리거나 놀이에 끊임없이 참견하였다. 예비실험 절차는 Rudy와 Goodman(1991)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나, 본 예비실험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실험에서는 놀이가 진행되는 방과는 분리된 장소에서 놀이장면을 관찰하도록 관찰 조건을 변경하게 되었다. 즉 Tobey와 Goodman(1992)가 사용한 것처럼, 옆방에서 CC-TV로 놀이상황을 관찰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예비실험을 통해 본실험에 실시할 놀이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아동들의 놀이에 대한 흥미도와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가위바위보, 찰흙놀이, 옷입기, 사진찍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각의 놀이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옷입기 놀이에서 아동이 좋아하는 그런 류가 아니면, 입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 아동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옷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질문문항에서도 문항수가 너무 많으면 아동의 집중력이 떨어짐을 고려하여 20개-30개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실험

### 연구대상

2003년 3월 서울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와 5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각 집단별(참여-비위협집단, 관찰-비위협 집단, 참여-위협집단)로 11명씩 표집 하여 놀이상황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놀이상황에 임하지 않겠다고 한 아동이 2명, 이후 기억과제를 실시하는 날 병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이 2명 있었다. 따라서 조건별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각 집단별로 9명씩의 반응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7명 아동의 반응들이 분석되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지나치게 사회성이 결여되지 않은 아동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 도구

기억검사질문: 사람, 행동, 방에 관한 기억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총 24문항이었으며 Rudy와 Goodman(1991)의 연구에서 아동의 기억을 검사하는데 사용되었던 문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본연구에서 한 아동에게 제시된 질문은 크게 객관질문과 유도질문의 2가지 유형이었으며 각각 일반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문항이 4개, 성 관련한 행동을 질문하는 문항이 4개, 방에 관한 기억문항 2개, 사람에 관한 2개 문항이 포함되어 총 24문항이다. 즉 객관질문 12문항과 유도질문 1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유도질문 중에서 단순형 6문항, 강제선택형 6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 행동 객관질문은 놀이상황 동안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질문으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그 아저씨와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니?” (관찰집단의 경우: 그 아저씨가 그 애랑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니?” 성관련 행동 객관질문은 성관련 행동에 대한 객관적 질문으로 “그 아저씨가 너를 안아줬니? (관찰집단의 경우: 그 아저씨가 그 애를 안아줬니?)”와 같은 질문이었다. 방 객관질문은 놀이가 이루어졌던 공간에 대한 질문으로 “그 방에 쇼파가 있었니?” 등이다. 사람 객관질문은 함께 놀이를 했던 남성 실험자에 대한 질문으로 “그 아저씨는 머리가 짧았니?”와 같은 질문이 포함된다. 일반적 행동 유도 질문은 놀이상황에서 있었던 행동에 관한 유도적인 질문으로 실제와 다른 사실을 전제하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그 아저씨랑 공놀이 했지, 그렇지?(실제로는 공놀이를 하지 않았음)”. 성관련 행동 유도질문은 “그 아저씨가 너한테 뽀뽀했지, 그렇지?”와 같이 실제로 놀이 상황에 없었던 성관련 행동에 대해 전제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방에 관한 유도질문은 “그 방에 꽃병이 있었지, 그렇지?”와 같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람 관련 유도질문은 “그 아저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 그렇지?”와 같은 질문으로 남성 실험자에 대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하는 질문이었다. 유도질문은 다시 단순형 유도질문과 강제선택형 유도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단순형의 예는 “그 방에 꽃병이 있었지, 그렇지?”이며 강제선택형의 예는 “그 방에 있는 커튼이 빨간색이었니, 파란색이었니?”이다. 모든 문항은 예, 아니오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정답을 할 경우에 1점을 주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객관질문과 유도질문은 기억검사 상황에서 모두 주어졌다.

## 절차

각 아동은 평소 다니던 어린이집과는 다른, 낮은 환경에서 따로 준비된 교실에서 낮은 남성 실험자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절차로 놀이를 진행할 것을 미리 훈련받았다. 한 아동당 놀이에 참여한 시간은 10-15분 정도였으며, 참여집단의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는 동안 관찰집단의 아동은 옆 방에서 미리 설치된 CC-TV를 통해 그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참여조건의 경우, 실험자는 아동과 얼굴을 익히고 자기소개를 한 후 아동과 함께 가위바위보, 비웃 입기, 사진찍기, 찰흙놀이를 하였다. 이때 라포를 형성하고 놀이에 대한 아동의 참여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초콜렛을 주었다. 놀이상황은 Tobey와 Goodman(1992)의 연구와 유사하나, 그 내용은 예비실험을 거쳐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것으로 모두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놀이는 4가지로, “가위바위보”, “웃입어 보기”, “사진찍기”, “찰흙놀이”였다.

관찰조건에 할당된 아동의 과제는 참여조건의 아동과 실험협조자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옆 방에서 CC-TV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었다. 방에 아동이 들어오면 또 다른 여성실험 협조자가 자기 소개를 하고 TV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관찰조건의 아동들은 자신과 동성의 아동이 실험협조자와 놀이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할당되었다.

놀이 참여 및 관찰을 마친 3일 후, 각 아동은 1대 1로 놀이상황에 대한 면접을 받게 된다. 이 때 참여조건의 아동 9명과 관찰조건의 아동 9명은 비위협적인 여성 질문자가, 또 다

표 1. 각 집단별 질문내용에 대한 정확 반응 점수 평균

	참여-비위협 M(SD)	관찰-비위협 M(SD)	참여-위협 M(SD)	전체
객관				
일반 행동	1.00 (.05)	.94 (.05)	.72 (.05)	.89 (.03)
성관련 행동	.72 (.06)	.69 (.06)	.72 (.06)	.71 (.04)
방	.83 (.09)	.83 (.09)	.78 (.09)	.82 (.06)
사람	.89 (.07)	.94 (.07)	.78 (.07)	.87 (.04)
유도				
일반 행동	1.00 (.06)	.89 (.06)	.67 (.06)	.85 (.04)
성관련 행동	.89 (.08)	.61 (.08)	.64 (.08)	.73 (.05)
방	.94 (.80)	.39 (.13)	.61 (.13)	.65 (.07)
사람	1.00 (.09)	.83 (.09)	.61 (.09)	.82 (.05)
전체	.92 (.05)	.77 (.05)	.69 (.05)	

른 참여조건의 아동 9명은 위협적인 남성 질문자가 면접을 하였다.

위협적인 남성 질문자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남성 질문자를 만나기 직전에 미리 실험 협조자로부터 경찰 아저씨가 와있는데 아동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놀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성적인 상황이 전혀 없는 놀이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질문이 기억검사에 포함되었으므로 아동들이 혹시라도 느낄 수 있는 불편한 느낌을 없애주기 위해 기억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질문에 유도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본 연구는 실제로 놀이상황에의 참여 여부와 기억과제에서 질문자 특성에 따라 참여-비위협, 관찰-비위협, 참여-위협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억과제에서 질문문항이 내용(일반적 행동, 성관련행동, 방,

사람, 유형(객관형, 유도형)으로 구분된다. 남여에 따른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성별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질문의 내용, 질문의 유형, 그리고 집단 간에 따른 아동의 반응이 표 1에 있다. 내용(4)×유형(2)×집단(3)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내용과 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그 결과 내용의 주효과  $F(3, 72)=10.99, p<.01$  와 집단의 주효과  $F(2, 24)=4.85, p<.05$ , 내용×집단의 상호작용효과  $F(6, 72)=4.09, p<.01$ 와 유형×집단의 상호작용효과  $F(2, 24)=6.63, p<.01$ 가 유의미하였다.

집단간 전체 기억 수행을 보면, 참여-비위협 집단( $M=.92$   $SD=.05$ )이 관찰-비위협( $M=.77$   $SD=.05$ )집단과 참여-위협집단( $M=.69$   $SD=.05$ )에 비해 기억수행이 더 높았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성 관련 없는 일반행동( $M=.87$   $SD=.03$ ), 사람( $M=.84$   $SD=.04$ ), 방( $M=.73$   $SD=.04$ ), 성 관련 행동( $M=.72$   $SD=.03$ ) 순으로 기억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유형에 있어서는 객관 질문( $M=.82$   $SD=.02$ )이 유도질문( $M=.76$   $SD=.04$ )보다 기억수행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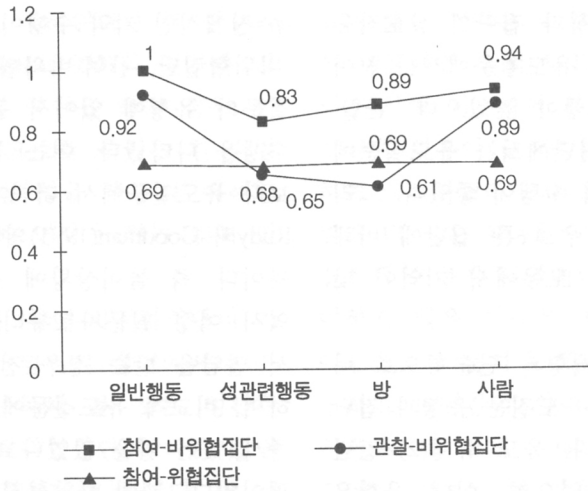


그림 1. 질문내용과 집단에 따른 기억점수

그림1에서 보듯이 질문내용과 집단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참여-비위협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기억 수행이 좋았다. 일반행동에 있어서 참여-비위협 집단( $M=1.00$   $SD=.05$ )과 관찰-비위협집단( $M=.92$   $SD=.06$ )이, 참여-위협집단( $M=.69$   $SD=.06$ )에 비해 기억을 더 잘하였다. 성 관련 행동에 있어서는 참여-비위협집단( $M=.83$   $SD=.06$ )이 관찰-비위협집단

( $M=.65$   $SD=.06$ )과 참여-위협집단( $M=.68$   $SD=.06$ )에 비해 기억수행이 더 높았다. 방에 관한 기억에서 참여-비위협집단( $M=.89$   $SD=.07$ )이 관찰-비위협집단( $M=.61$   $SD=.07$ )과 참여-위협집단( $M=.69$   $SD=.07$ )에 비해 수행이 더 높았다. 사람에 대한 기억에서는 참여-비위협집단( $M=.94$   $SD=.07$ ), 관찰-비위협집단( $M=.89$   $SD=.07$ )이 참여-위협집단( $M=.69$   $SD=.07$ )에 비해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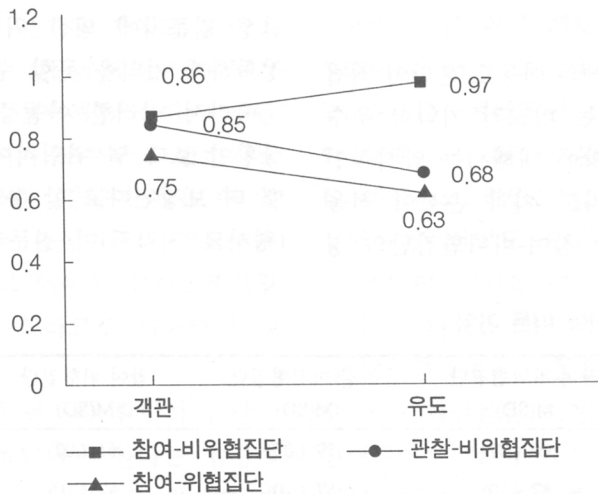


그림 2 . 질문유형과 집단에 따른 기억점수

그림 2에서 보면, 유형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유도질문에서는 참여-비위협집단의 기억 수행이 높았으나, 관찰-비위협집단, 참여-위협집단에서는 유도질문에 비해 객관질문에서 기억 수행이 좋았다. 그리고, 참여-위협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객관질문이나 유도질문 모두에서 기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질문은 다시 강제형과 단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와 같은 유도질문 유형과 집단 간의 반응이 표2에 있다. 유도 유형(2)×집단(3)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그 결과 유도유형의 주효과  $F(1, 24)=6.89$   $p<.05$ 와 집단의 주효과  $F(2, 24)=5.49$   $p<.05$ 가 유의미하였다. 질문유형이 강제 선택형인 경우( $M=.65$   $SD=.06$ )에 비해 단순형( $M=.79$   $SD=.04$ )에서 더 기억 수행이 높았다. 그리고 참여-비위협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 4세, 5세의 아동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억이 우수하며, 또한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암시적인 유도질문이 주어지더라도 기억 손상이 적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비위협집단의 경

우 전체적인 기억 수행이 다른 두 집단 (관찰-비위협집단, 참여-비위협집단)보다 높았으며, 질문의 유형에 있어서 유도질문에서도 높은 수행을 나타냈다. 이는 참여집단이 관찰집단보다 유도질문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는 Rudy와 Goodman(199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놀이상황에 직접 참여하였고, 기억시 여성 질문자로부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면담을 받는 경우 전체적으로 기억을 잘 하며, 비교적 유도질문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즉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이었다. 관찰-비위협집단, 참여-위협집단에서는 유도질문에 비해 객관질문에서 기억 수행이 좋았다.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한 경우나 놀이상황에 직접 참여하였지만 위협적인 상황에서 기억을 하는 경우에 유도질문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참여-위협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객관질문이나 유도질문 모두에서 기억이 낮은 편이었다. 즉 관찰집단에 비해 참여집단 아동의 기억이 대체로 더 좋으나, 아동이 비록 놀이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시 남성 질문자에 의한 위협적인 분위기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증언의 정확성은 면담 상황이 보다 덜 위협적이며 부드러운 상황일 때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위협적인 남성(형사로 지각됨)이 질문자인 경우 아동의 기

표 2. 유도질문유형과 집단에 따른 기억

	참여-비위협집단 M(SD)	관찰-비위협집단 M(SD)	참여-위협집단 M(SD)	전체
단순형	.96 (.07)	.79 (.07)	.61 (.07)	.79 (.04)
강제선택형	.87 (.10)	.57 (.10)	.52 (.10)	.65 (.06)
전체	.92 (.08)	.68 (.08)	.56 (.08)	

억보고는 그 정확성이 저하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Tobey와 Goodman(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이 증언을 하는 경우, 면담상황에서의 위협적 요소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면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 참여-비위협집단의 기억 수행이 더 좋았다. 법적인 장면에서의 아동증언과 관련지어 주목해 볼 것은 성관련 행동 문항에서 참여-비위협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점이다. 즉 성관련 행동에 관한 진술에서 놀이에 직접 참여하고 비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이를 기억하게 하면 어린 아동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하는 부정확한 진술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 4세, 5세의 아동증언이 신뢰로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유도질문의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단순형보다 강제선택형에서 기억 손상이 더 많았다. 아동이 유도질문이 강제선택형일 경우 더 많은 암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은 질문에서 제시된 두가지 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니라고 답하거나 모른다고 답하기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도질문은 아동증언의 정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더욱이 강제선택형일 경우 그 왜곡 정도가 심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분야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된 것이다. 아동이 실제로 참여한 상

황에 대한 기억은 우수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대표적인 실험인 Tobey와 Goodman(1992)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놀이상황을 좀 더 추가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아동에 있어서 원래 더 많은 아동들이 실험에 포함되었으나, 실험에 응하지 않았거나 기억과제 실시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하고 적은 숫자의 아동반응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인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변인도 포함시킨 아동증언 실험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동증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법적인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이 그 기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동증언 문제가 실제 법정이나 수사 현장에서 다른 증언과는 달리 다른 절차에 의한다거나 좀더 세심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에 근거를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학적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국 연구에 의존한 실험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만 4, 5세 아동의 기억이 신뢰롭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고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법정이나 수사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동현 (2002, 9, 26). 性폭행 당하는 어린이 年 평균 434명. 조선일보.
- 박자경, 이승복 (1999). 유도질문이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54-71.
- 이재연, 정영숙 (1999). 아동증언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발달적 접근.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보고서*.
- Brigham, J. C., Van Verst, M., & Bothwell, R. K. (1986). Accuracy of children's eyewitness identifications in a field setting. *Basic & Applied Social Psychology*, 7, 295-306.
- Bruck, M. & Ceci, S. J. (1995). Amicus Brief for The Case of State of New Jersey v. Michaels Presented by Committee of Concerned Social Scientis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2), 272-322.
- Bruck, M., Ceci, S. J., & Hembrooke, H. (1998).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Young Children's Reports. From Research to Polic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53(2), 136-151.
- Bull, R. & Davies, G. (2002). The Effect of Child Witness Research on Legislation in Great Britain. In B. L. Bottoms & G. S. Goodman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ild Abuse and Children's Testimony* (pp. 96-113). Thousand Oaks, CA: Sage.
- Carter, C. A., Bottoms, B. L., Levine, M. (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0, 335-358.
- Ceci, S. J., &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Ceci, S. J., Leichman, M., & Putnick, M. (1992).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 preschooler's deception*. Hillsdale, NJ: Erlbaum.
- Ceci, S. J., Ross, D., & Toglia, M. (1987). Age differences in suggestibility: Psycholeg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7, 38-49.
- Cohen, R. L., & Handrick, M. A. (1980). The Suggestibility of child witnesses to suggestion. *Law and Human Behavior*, 4, 201-210.
- Dent, H., & Stephenson, G. M. (1979).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echniques of questioning child wit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41-51.
- Fivush, R. (199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autobiographical recall. In G. S. Goodman & B. Bottoms (Eds.), *Understanding and improving children's testimony*. New York: Guilford Press.
- Fivush, R., & Shukat, J. R. (1995). Content,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early autobiographical recall. In M. Zaragorza, J. Graham, G. Hall, R. Hirschman, & Y. Ben-Porath (Eds.), *Memory and testimony in the child witness* (pp. 5-2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hetti, S., Goodman, D. S., Eisen, M. L., Qin, J. & Davis, S. L. (2002). Consistency on children's reports of sexual an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6, 977-995.
- Goodman, G. S., Bottoms, B. L., Schwartz-Kenney, B. M., & Rudy, L. (1991). Children's testimony about a stressful event: Improving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1, 69-99.
- Goodman, G. S., & Reed, R. S. (1986). Age Difference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 317-332.
- Goodman, G. S., Rudy, L., Bottoms, B. L., & Aman, C. (1980). Children's concerns and memory: Issues of ecological validity in children's testimony. In R. Fivush & J. Hudson (Eds.), *Knowing and remembering in young children* (pp. 249-284). New



-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man, G. S., & Schwarz-Kenney, B. M. (1992). Why knowing a child's age is not enough: A study of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on children's testimony. In R. Flin & H. Dent (Eds.), *Children as witness* (pp. 15-32). London: Wiley.
- Hamond, N. R., & Fivush, R. (1991). Memories of Mickey Mouse: Young children recount their trip to Disney World. *Cognitive Development*, 6, 433-448.
- Hudson, J. A., & Fivush, R. (1991). As time goes by: Sixth graders remember a kindergarten experience. *Applied Cognitive Development*, 5, 347-360.
- King, M., & Yuille, J. (1987). Suggestibility and the child witness. In S. J. Ceci, M. Toglia, & D.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24-35). New York: Springer-Verlag.
- Leichman, M. D., & Ceci, S. J. (1995). The Effects of Stereotypes and Suggestions on Preschoolers'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68-578.
- Leippe, M. R., & Romanczyk, A. (1989). Reactions to child (versus adult) eyewitness: The influence of jurors' preconceptions and witness behavior. *Law and Human Behavior*, 13, 103-132.
- Lewis, M., Stranger, C., & Sullivan, M. (1989). Deception in three-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39-443.
- Loftus, E. F. (1979). Eyewitness testimo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lton, G., & Thompson, R (1987). Getting out of a rut: Detours to less travelled paths in child witness research. In S. J. Ceci, M. Toglia, & D.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209-229). New York: Springer- Verlag.
- Ornstein, P. A., Gordon, B. N., & Larus, D. (1992). Children's memory for a personally experienced event: Implications for testimon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6, 49-60.
- Peters, D. P. (1991). The influence of stress and arousal on the child witness. In J. L. Doris (Ed.),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pp. 60-7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on, C., Dowden, C., & Tobin, J., (1999). Interviewing preschoolers: Comparisons of yes/no and wh- question. *Law and Human Behavior*, 23(5), 539-555.
- Peterson, C., Moores, L., & White, G., (2001). Recounting the same event again and again: Consistency across multiple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353-371.
- Poole, D. A., & White, L. T. (1991). Effects of question repetition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975-986.
- Rosenthal, R. J. D. (2002). Suggestibility, reliability, and the legal process. *Developmental Review*, 22, 334-369.
- Rudy, L., & Goodman, G. S. (1991). Effects of Participation on Children's Report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27-538.
- Sas, L. D., Wolfe, D. A., & Gowdey, K. (2002). Children and the Courts in Canada. In B. L. Bottoms & G. S. Goodman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ild Abuse and Children's Testimony* (pp. 77-95). Thousand Oaks, CA: Sage.
- Saywits, K. J., Goodman, G. S., Nicholas, E., & Moan, S. F. (1991). Children's memories of a physical examination involving genital touch: Implications for report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9(5), 682-691.

- Spencer, J. & Flin, R. (1990). *The evidence of children: The law and the psychology*. London: Blackstone.
- Sternberg, K. L., Lamb, M. E., & Hershkowitz, I. (1996). Child sexual abuse investigations in Israel: Evaluating innovation. In B. L. Bottoms & G. S. Goodman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ild Abuse and Children's Testimony: Psychological Research and Law* (pp. 322-337). Thousand Oaks, CA: Sage.
- Tobey, A. E., & Goodman, G. S. (1992). Children's Eyewitness Memory: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Forensic Context. *Child Abuse & Neglect*, 16, 779-796.
- Yarmey, D., & Jones, J. (1983). Is the psycholog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a matter of common sense? In S. Lloyd & B. Clifford (Eds.), *Evaluating witness evidence* (pp. 13-40). New York: Wiley.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3. Vol. 16, No. 2, 1-19

---

#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the Types of Questionnaires and Interviewer on Children's Testimony

Keumjoo Kwak

Yeonsoo Kim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ccuracy of children's testimony especially about the effect of participation. 4 to 5-years-old children played with an unfamiliar man in a new situation. After playing together they were questioned about the played event. The groups were divided according to participation and the contextual situation(interviewer) of recall. Children were grouped one of three conditions (participant-non threatened interviewer, observation-non threatened, participant-threatened). The recall task had 4 contents and was divided as misleading questionnaires(forced choice or simple ones) or not. As the results, participant-non threatened interviewer group had good memory comparing of other groups. Their performance of the misleading questions and sex-related questions were better than the other groups. Especially the forced-choice misleading questions were more difficult than simple one for children.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such as that non forced-choice questions and non threatened interviewers improved to the children's testimony.

*Keywords: children's testimony, participation, misleading question*